



김성수(고려신학대학원)

## 1. 서론

이사야 6장이 이사야서 전체나 이사야 1-12장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사야 6장이 소명 기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사야 6장이 소명 기사라고 한다면 왜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사야 6장이 현재의 위치에서, 특별히 1-12장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각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이유에서 본고는, 이전의 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 6장이 장르에 따른 1-12장의 구조 가운데서 각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학적인 관점

---

\* 본 논문은 2019년 고려신학대학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에서 연구함으로써, 이사야 6장이 1-12장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안내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이사야 1-12장의 문맥 속에서 이사야 6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첫째, 야훼를 그들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을 강화시킨다. 둘째, 야훼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들을 확실하게 한다. 셋째, 야훼가 미래에 행하실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들을 확증한다. 이사야 6장은 1-12장의 중심축으로서 이사야가 1-5장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고발, 심판, 구원의 메시지와 7-11장에서 구체적인 예들로 제시하는 동일한 메시지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에 대한 소명 기사가 6장에 등장하는 것은 선지자의 소명의 장면뿐만 아니라 소명의 장면에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예언을 통해 1-12장 전체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이사야 1-12장의 문학적 구조

이사야 1-12장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여기서는 예언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 구분에 따라 소명 기사, 죄에 대한 고발, 심판의 선언, 구원과 회복의 예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 찬양 등으로 1-12장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면 1-12장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도표화될 수 있다.

---

1) Andrew H. Bartelt, "The Centrality of Isaiah 6(-8) within Isaiah 2-12", *Concordia Journal* 30/4(2004), 316-335에서는 1장을 전체 책의 서론으로 보고 2장 1절-5장 30절과 8장 19절-12장 6절이 핵심 부분인 6장 1절-8장 18절을 둘러싸는 구조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서 5장 8-25절과 9장 7절-10장 4절의 두 시들의 연결성과 2장 1절-4장 1절과 10장 5절-12장 6절의 연결점을 잘 분석하여 임마누엘 이야기 부분인 6-8장을 어떻게 이 두 그룹이 둘러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논문은 각 부분의 장르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6장의 문학적, 주제적 완결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1:1-31 고발	5:1-30 고발
2:1-5 구원-시온의 회복	4:2-6 구원-시온의 회복
2:6-4:1 심판	

6:1-13 이사야의 소명

7:1-17 아하스에 대한 고발과 에브라임(아람)에 대한 심판	9:8-10:4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
7:18-8:8 앗수르를 통한 심판	10:5-19 앗수르에 대한 심판
8:9-22 그를 신뢰하는 자의 안전이신 야훼	10:20-34 야훼를 신뢰하는 남은 자의 구원
8:23-9:6(한 9:1-7) 왕을 통한 구원과 회복	11:1-16 왕을 통한 구원과 회복
12:1-6 구원에 대한 찬양	

위의 구조에 의하면 6장 이전 장들의 구조는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갖는다. 먼저, 심판 예언의 일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고발을 주로 담고 있는 1, 5장이 2장 1절-4장 6절을 둘러싸는 형태를 취한다.<sup>2)</sup> 한편, 가운데 부분 중에서 시온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단락인 2장 1-5절과 4장 2-6절은 심판 예언 부분인 2장 6절-4장 1절을 둘러싼다. 제일 가운데 위치한 2장 6절-4장 1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날(‘그 날,’ 2:11, 17, 20; 3:7, 18; 4:1)을 선언하고 있다.<sup>3)</sup> 이 중심부분이 1-5장의 핵심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다.<sup>4)</sup>

7-11장은 구체적인 역사상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5장이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갖는 반면에 7-11장은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7장 1-17절과 9장 8절-10장 4절은 공통적으로 에브라임의 죄악을 드러내고 고발과 심판을 선언한다. 또 7장 18절-8장 8절이 에브라임과 아람과 유다에 대한

2) 두 표제인 1장 1절과 2장 1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각 장에 포함시켰다.  
 3) Andrew H. Bartelt, *유태*, 323-324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다.  
 4) 1-6장에 대한 본고의 구조분석은 기본적으로는 P. House, "Isaiah's Call and its Context in Isaiah 1-6", *Criswell Theological Review* 6 (1993), 211과 일치하지만 1-5장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악함과 그에 따른 이사야의 사역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견해(213쪽)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앗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 10장 5-19절은 야훼의 진노의 도구였던 교만한 앗수르에 대한 야훼의 심판을 예언한다. 세 번째 대칭 단락인 8장 9-22절과 10장 20-34절은 둘 다 심판의 때에라도 야훼를 신뢰하는 자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받을 것을 고백과 예언으로 알린다. 마지막으로 9장 1-7절과 11장 1-6절은 둘 다 이상적인 다윗 가문의 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12장은 1-12장 전체의 절정으로서 심판의 기간 중에도 야훼께서 결국 남은 자들을 당신의 의로운 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찬양한다.

이상의 1-12장의 구조 속에서 이사야 6장이 소명 기사라면 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경우처럼 첫 부분이 아닌 현재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 그것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6장은 1-5장의 결론이자 7-12장의 서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sup>5)</sup> 즉 “이사야가 먼저도 입적인 선언들 후에 자신의 선지자적인 사역에로의 소명 기사를 기술한 것은 그가 이미 선포한 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6)</sup> 차일즈(B. S. Childs)나 카이저(Otto Kaiser)도 동의하듯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미 걱정하신 구원과 심판을 알리셨음을 이사야 6장의 위치와 문맥이 잘 나타낸다.<sup>7)</sup> 이들은 모두 이사야 6장이 앞과 뒤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들을 수사학적으로 강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사야 6장을 소명의 기사로 보고 1-12장의 문맥 속에서 이사야 6장이 어떻게 1-5장이나 7-12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메시지를 강화하고 안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 L. J. Liebreich, "The Position of Chapter Six", *HUCA* 25 (1954), 40;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1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65), 234;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173, 204-205.

6) E. J. Young, *룻길*, 233.

7) Otto Kaiser, *Isaiah 1-12*,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73;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331.

### 3. 이사야 6장 해설

#### 1) 이사야 6장의 장르

이사야 6장의 장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 기사를 소명 기사로 보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느냐에 집중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라고 생각한다.<sup>8)</sup> 특별히 하벨(N. Habel)은 소명 기사 양식에 따라 본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하나님과의 대면(1-2절), (2) 서언(3-7절), (3) 임무 위임(8-10절), (4) 반대(11전반 절), (5) 재확신(11-13절).<sup>9)</sup> 하우스(P. House)는 하벨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11절 전반 절을 모세나 예레미야의 경우와 같은 선지자의 반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올바른 견해를 표한다.<sup>10)</sup>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사야 6장의 위치와 열왕기상 22장 19-21절에 나오는 미가야의 환상과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이사야 6장을 소명 기사로 보는 것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sup>11)</sup> 이들에게는 미가야의 환상 이사가 특정한 사역을 위해 천상의 어전 회의에서 한 영에게 독특한 임무를 위임

---

8) P. House, 윗글, 213; N. Habel,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 (1965), 309-312; J. N. Oswalt, 윗글, 172; R. E. Clements, *Isaiah 1-39* (New Century Bible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72-73; M. Sweeney, *Isaiah 1-39* (FOTL 14; Grand Rapids: Eerdmans, 1996), 136.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6장을 이사야가 아닌 후대의 내레이터들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과거를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한 소명 장면으로 본다. 린트(M. C. Lind)는 6장이 잇수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소명 기사로 보려고 한다. "Political Implications of Isaiah 6",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Vol. 1 (Leiden, New York, Koln: Brill, 1997), 317.

9) N. Habel, 윗글, 310-312.

10) P. House, 윗글, 213.

11) J. Hays and S. Irvine, *Isaiah,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108-110; P. D. Miscall, *Isaiah* (Readings, A New Biblical Commentary; Sheffield: JSOT Prss, 1993), 34; Y. Gita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sen: Van Gorcum, 1991), 119; M. Tsevat,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and Other Biblical Studies: Essays on the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Pub. House, 1980), 155, 158; C. Seitz, *Isaiah 1-39*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55; H. Wildberger, *Isaiah 1-12* (trans. Thomas H. Trapp),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254. M. M. Kaplan, "Isaiah 6:1-11", *JBL* 45 (1926), 251은 이사야 6장의 환상은 백성들에 대한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느낀 절망감에서 나온 심리적인 허구라고 본다.

하는 모델이 된다.<sup>12)</sup>

스위니(M. Sweeney)는 양식 비평적인 관점에서의 위의 주장들을 인정하면서도<sup>13)</sup> 6장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는 중심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 장을 소명 기사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이사야 6장은 아람-에브라임 전쟁과만 관련하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9장과 관련된 이사야의 선지자적 경력 전체와 더 나아가 바벨론 포로기의 관점에서 1-66장 전체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6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선지자의 핵심적인 활동 혹은 소명을 요약한다.”<sup>14)</sup> 즉, 이사야 6장은 에브라임-시리아 전쟁이나 앗수르의 침략과 관련된 1-39장의 심판과 구원 예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와 회복을 통한 시온의 정화와 회복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사야 6장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갖는 이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생각할 때, 이사야 6장은 소명의 기사임이 분명하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에 너무 일반적이고 전형적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1-12장의 문맥 속에서 6장의 기능을 살펴 볼 때에 더욱 더 분명해질 것이다.

## 2) 이사야 6장의 구조

운문체로 기록된 5장과 달리 1인칭 관점의 산문체로 기록된 환상 기사인 이사야 6장의 통일성<sup>15)</sup>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sup>16)</sup> 우리는 여기서 1절과 8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학적 특징에

---

12) 김재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 기능”, 『구약논단』 13/3(2007), 72-73 참조.

13) M. Sweeney, 윗글, 135.

14) M. Sweeney, 윗글, 136. B. S. Childs, 윗글, 331에서는 “이 편집적인 구조(6장의 위치)의 중요성은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의 소명에서 이사야에게 알려진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15) M. Sweeney, 윗글, 132.

16) P. House, 윗글, 214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눈다. 1-4절 하나님에 대한 환상, 5-7절 죄와 그것의 씻음, 8-10절 위임, 11-13절 이사야의 힘든 사역과 이스라엘의 힘든 미래. 하지만, R. E. Clements, 윗글, 72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3절 하나님 환상, (2) 4-7절 정결의 행동과 선지자로서의 준비, (3) 8-11절 하나님의 명령 위임

주목해야 한다. 1절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이 “내가 앉으신 주를 보았다”(בַּשֵּׁב אָרָאָה אֶת־אֲדֹנָי)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반면, 8절에서는 이사야가 ‘들은’ 야훼의 말씀이 “내가 말씀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אָשַׁמַע אֶת־קוֹל אֲדֹנָי אִמֶּר)는 문장으로 유사하게 시작한다. 8절로부터 야훼와 이사야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야훼를 보는 데서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데로 변화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사야6장의 문학적 구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1-7절 이사야가 본 환상

1-4절 왕이신 만군의 야훼에 대한 환상

5-7절 이사야의 정화를 통한 사역의 준비

8-13절 이사야가 들은 위임 명령

8-10절 이사야에 대한 위임 명령

11-13절 심판과 구원의 예언

---

(12-13절은 6세기의 첨가 부분). J. Magonet, "The Structure of Isaiah 6", *Proceedings of the Nin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Division A (The Period of the Bible)*,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85), 93-95에서는 1-4절을 천상의 영역, 5-10절을 중간 영역, 11-13절을 지상의 영역으로 구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분에 좌정(כּוּשֵׁן/요셉), 주(יְהוָה/아도나이), 야훼(יְהוָה)가 각각 한 번씩 등장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11절이 앞에서 진행된 대화의 지속임을 생각하면 무리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랜디(F. Landy)는 마고넬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4 신현(divergence), 5-8 이사야의 반응 (convergence), 9-13 위임(divergence). "Strategies of Concentration and Diffusion in Isaiah 6", *Biblical Interpretation* 7, 1(1999), 59, n. 4.

17) Willem A. M. Beuken, "The Manifestation of Yahweh and the Commission of Isaiah: Isaiah 6 Read against the Background of Isaiah 1", *Calvin Theological Journal* 39 (2004), 74도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구조를 제시한다. 또 홍성혁, "이사야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구약논단』 제 15권 1호 (2009년 3월), 144에서는 1절 1행을 배경으로 따로 분리하지만 1절 2행부터 7절을 '환상 보도'로, 8-13절을 '환 청 보도'로 크게 구분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구분은 위의 구조와는 약간 차이가 난다.

### 3) 1-7절 이사야가 본 환상

#### (1) 1-4절 왕이신 만군의 야훼에 대한 환상

1-4절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야훼(5절)의 거룩하심과 우주적 왕권을 여러 가지 표현들과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첫째, 인간 왕 웃시야의 죽음은 영원한 왕(מֶלֶךְ הַמֶּלֶךְ 함멜렉/왕 1, 5절의 대조)이신 야훼와 대조되고 있다. 이사야는 인간 왕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참되신 왕의 위엄을 봄으로써 위대했던 인간 왕의 죽음의 영향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sup>19)</sup> 김회권은 이 점을 “그는 이제 왕실 의존적 서기관의 시야에서 벗어나 천상 어전회의를 주재하는 신적인 왕의 예언자라는 시좌(視座)를 획득한다.”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sup>20)</sup> 둘째,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 혹은 ‘웃자락’은 야훼의 위엄을 묘사한다(1절). 야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계셨고 그분의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셋째,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는 행동(2절)은 야훼의 위엄과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 스랍들의 교창은 직접적으로 야훼를 ‘거룩하시다’고 세 번 씩이나 노래하고 있다. 다섯째, 4절에 나오는 스랍들의 교창에 동반된 현상들 또한 야훼의 거룩하심을 강화시킨다. 연기와 흔들림은 출애굽기 19장 16-18절에 나오는 야훼의 임재 현상(출 24:15-18)을 연상시킨다. 또한 연기와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현상은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성막 안에 야훼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던 것을 상기시킨다(출 40:34-35). 더욱이, 1, 3, 4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가득하다’는 동사 어근은 이 땅에 충만한 야훼의 임재를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1-4절은 야훼의 거룩하심이 이 땅 위에 가득한 야훼의 영광으로 표현

18) 김회권, “이사야의 하나님 결단의 신학”, 『구약논단』 13권 3호(2007, 9월), 17-18 참조.

19) 홍성희, 『유태교』, 144-145에서도 야훼의 우주적 통치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1-4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한다고 한다. 특별히 이사야의 죄의 제거나 유다 백성의 심판과 회복의 주도권이 야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점을 부각시킨다고 주장한다.

20) 김회권, 『유태교』, 16.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5장에 나오는 심판의 문맥에서 볼 때 6장의 이 부분은 야훼를 거룩하신 왕으로, 특별히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하시는 왕으로 선포하는 듯하다.<sup>21)</sup> 야훼가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가? 야훼의 왕권을 부정하는 ‘부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열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야훼의 방문하심은 야훼를 왕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 5-7절이 그것을 보여준다.<sup>22)</sup> 동시에 6장에서 강조하는 야훼의 우주적 왕권은 7-12장에서는 열방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열방을 심판하는 예언들의 기본적인 전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7장에 등장하는 아하스가 왜 앗수르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야훼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 (2) 5-7절 이사야의 정화를 통한 사역의 준비

5-7절은 이사야가 야훼를 본 환상의 결과, 즉 이사야가 자신과 백성의 죄에 대해 고백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야훼가 그의 왕적인 위엄을 이사야에게 보이시고 스랍들이 그의 거룩하심을 선포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입술이 부정한 사람”)와 민족의 죄(“입술이 부정한 백성”-5절)를 깨닫는다. 이사야가 깨달은 ‘부정함’에는 백성의 부정에 대한 선지자 자신의 책임도 포함될 것이다.<sup>24)</sup> 이사야는 “화로다(חַיִּי/오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5절)라고 외치며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레위기를 비롯한 많은 책들에서 חַיִּי(타메/부정한)는 חַיִּי(카도쉬/거룩한)와 대조적인 단어로 쌍을 이루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레 10:10;

21) Rolf Knierim, “The Vocation of Isaiah”, VT 18 (1968), 59에서는 1-4절 자체가 모든 기사, 즉 심판 환상에 대한 기본적인 진술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 환상 자체는 야훼가 심판의 회의 가운데 앉아서 심판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김희권, 율글, 17 참조.

22) M. C. Lind, 율글, 320, 336.

23) 홍성혁, 율글, 145.

24) 율글, 146.

11:44; 20:3; 22:4,6; 사 35:8; 52:1; 겔 22:26; 43:7-8; 44:23).<sup>25)</sup> 5절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즉 이사야가 살고 있는 유다의 타락한 상황을 보여준다. ‘아! 슬프다’ 혹은 ‘(내게) 화가 미쳤다!’로 번역되는 선지자의 외침 חַי (호이)는 5장에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חַי (호이/화 있을진저)를 연상시킨다.<sup>26)</sup>

그러나 한 스랍이 단에서 가져온 핀 숲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그는 정결하게 되었고 그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6, 7절). 스랍의 행동과 선포는 야훼의 용서와 죄의 정화를 대표한다. 야훼만이 죄를 회개하는 인간을 심판에서 건지실 수 있다. 단에서 취한 숲의 정결케 하는 능력은 민수기 16장 46-47절에 암시되어 있다. 죄를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숲불’은 죄의 정화와 소명을 위한 회복의 수단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라는 심판을 통한 정화를 상징한다(사 6:9-10, 11-13; 1:21-27).<sup>27)</sup> 특별히 13절에서 ‘황폐하게 되다’로 번역된 כָּבַד (바아르)는 ‘불타다’로 직역될 수 있어서 심판의 이런 정화하는 측면을 강조한다.<sup>28)</sup> 심판조차도 결국 정화를 통한 회복을 낳을 것이다. 7절에 나오는 스랍의 말은 온전한 죄 사함을 강조한다. 6-7절이 묘사하는 이사야의 예는 어떤 심판이 그의 백성들에게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록 백성들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겠지만 이사야는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에게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죄 씻음과 죄의 정화가 회복의 전제 조건이다(사 1:16, 18, 25-27). 그러므로 우리는 8-13절을 5-7절의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한다. 이사야의 경험은 1-5장과 7-12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고발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면서도 정화를 통한 남은 자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6장의

25) Willem A. M. Beuken, 윗글, 78 각주 11.

26) C. Seitz, 윗글, 27, 55. R. E. Clements, 윗글, 75에 의하면 חַי (호이)와 חַי (호이) 사이에 의미의 차이는 없다.

27) 홍성혁, 윗글, 150.

28) 윗글, 151. Willem A. M. Beuken, 윗글, 77은 이사야에게는 불타는 숲불이 선지자의 정화를 가져온 반면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땅은 야훼의 심판에 의해서 불타게 되었음을 대조시킨다.

소명 기사는, 1-5장에서 일반적인 용어들로 기록된 시온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정화를 통한 회복 예언을 요약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의 모범을 제공하는 결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4) 8-13절 이사야가 들은 위임 명령

##### (1) 8-10절 이사야에 대한 위임 명령

6장 8-10절은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위임받는 장면을 다루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한다. 이사야는 야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使者)로 위임을 받는다. 5-7절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오직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야훼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만이 야훼의 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사야의 위임은 야훼의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자신의 자원의 결과이기도 했다. 선지자의 반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는 5절에 표현된 이사야 자신의 절망과 슬픔에 대조되는 스스로의 신분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표현하는 것이다.<sup>29)</sup>

이사야의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쉽지 않을 것이다. 9-10절은 이사야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위임 명령(“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과 함께 야훼는 이사야에게 힘든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백성’이라는 표현(9, 10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sup>30)</sup> 야훼가 불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sup>31)</sup> ‘이 백성’은 1-5장에서 부정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백성이다.<sup>32)</sup> 9절이 보여주듯이,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머슴과 눈멀음으로 초래될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야훼의 교훈

29) F. Landy, 윗글, 68.

30) O. Kaiser, 윗글, 82.

31) R. E. Clements, 윗글, 76은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1-39장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8:6, 12: 28:14; 29:13; 30:9; 10:6; 2:6, 26:22)과, 이에 비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40-55장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40:1; 41:8-9; 43:6-7; 44:1-2; 42:1-4; 43:20-21; 44:5, 21-11; 45:4, 9-10; 51:4, 16; 52:5)는 점을 강조한다.

32) 김희권, 윗글, 20-22.

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앞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계속 거부할 것이다. 도리어 이사야가 야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들 것이다(10절). 그들이 비록 야훼의 말씀을 듣고 보겠지만 그들은 깨닫거나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야훼를 ‘보고’(1, 8절) 야훼에게서 ‘들은’ 결과와 상반된다.<sup>33)</sup> 10절의 교차대구법은 절묘하다. ‘마음’-‘귀’-‘눈’-‘하지 않도록’-‘눈’-‘귀’-‘마음’. 이 교차대구법에 등장하는 환유법적인 신체 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적인 거부를 대표한다. 이 구조 제일 중심에 불길한 접속사인  $\text{וְ}$ ( $\text{וְ}$ -/하지 않도록)이 등장한다. 이 접속사 앞에 이사야의 부정적인 임무를 담은 세 가지 절이 나오고 이 접속사 후에 또 다른 세 절이 뒤 따르면서 그 임무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사야의 사역은 한 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이다. 야훼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은 9-10절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관계되는데, 그 전제란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야훼의 교훈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해 왔다는 사실이다(1-5장). 그런 의미에서 9-10절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에 대한 간접적인 고발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 5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귀먹음, 눈멀, 굳은 마음이다. 이사야는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거절이 그의 사역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가 멀었는지,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 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sup>34)</sup> 동시에 9-10절에 있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 행하실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sup>35)</sup> 그들이 그가 의도하신

33) Willem A. M. Beuken, *룻글*, 3-4.

34) C. Seitz, *룻글*, 27, 56.

35)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II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152-155에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항상 인간 본성의 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152쪽)고 하며,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역사적인 다루심의 한 특정한 방식”(155)이라고 한다. 폰 라트가 제시하는 참고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사 9:23; 삼상 16:14, 18:10, 19:9; 왕상 12:15. J. L. McLaughlin, “Their Hearts Were Hardened: the Use of Isaiah 6, 9-10 in the Book of Isaiah”, *Biblica* 75 (1994), 7-9도 참조.

심판(11-13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sup>36)</sup> 알렉산더(J. Alexander)는 10절을 다음과 같이 옳게 이해한다. “핵심적인 주제는 그들의 무감각함인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부패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사야의 사역의 유일한 가시적인 결과로 인식된다.”<sup>37)</sup>

## (2) 11-13절 심판과 구원의 예언

이스라엘의 귀머غ음과 눈멀은 그들에 대한 야훼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미래의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질문(“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에 대답하시는 가운데서 주어진다.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물음(11절)을 통해 선지자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담긴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sup>38)</sup> 야훼의 심판의 끝에 대해서 묻고 있다. 선지자는 여기서 자신의 어려운 임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질문은 그의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한 기본적인 전제를 보여주는데, 그 전제는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39)</sup> 즉, 선지자의 질문은 황폐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있을 최후의 긍정적인 말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말은 “(심판의 일에 대한) 파괴로부터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다”이다.<sup>40)</sup>

11절은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통해 이스라엘의 철저한 파괴를 예언한다. (성읍들이) ‘황폐하고’(חָרָב/샤우) - 성읍의 거민이 ‘없고’(אֵין/메엔) -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אֵין/메엔) - 토지는 ‘황폐하여’(חָרָב/티샤에). 이러한 교차대구적인 구조는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

36) O. Kaiser, *룻*, 73; J. L. McLaughlin, *룻*, 7-9.

37) J. A. Alexander, *Commentary on Isaiah* (Two volumes in one), (Grand Rapids: Kregel, 1992), 152; *겔* 3:4-9; *렘* 1:17-19; *암* 4:6-12; *사* 9:8-10 참조.

38) R. E. Clements, *룻*, 77.

39) H. Wildberger, *룻*, 274.

40) C. Seitz, *룻*, 57; H. Wildberger, *룻*, 274.

조하며 마지막 단어인 **הַמָּדָה**(쉐마마/폐허)는 그런 의미에서 절정을 이루는 말이다. 땅의 황폐함은 백성들의 포로 됨으로 이어진다(12절). 11절의 황폐하게 되는 세 영역-성읍, 가옥, 토지는 12절 이후에는 **הָאֶרֶץ**(하아레츠/그 땅)란 단어에 담겨진다. 심판의 절정은 땅에 남은 십분의 일마저 파괴되는 데서 분명하게 표현된다(13a절).

많은 학자들은 12-13절을 나중의 역사적인 관점들을 반영하는 추가된 부분으로 주장하면서,<sup>41)</sup> 그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2절에 나오는 3인칭으로 표현된 ‘야훼’라는 단어는 11절에서 시작된 야훼의 말씀(1인칭)의 문맥에 맞지 않고, 12절 상반 절에 나오는 포로 됨에 대한 언급은 후대의 관점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 몇몇 학자들은 12-13절을 선지자 자신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보는데, 선지자가 자신의 환상을 유다에 대한 앗수르의 침공으로, 12절의 ‘십분의 일’을 주전 722년의 북 왕국의 멸망 후에 남은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sup>42)</sup> 이 학자들에게는 12절에 언급된 포로 됨은 분명히 북 왕국에서 나온 포로들을 가리킨다. 다른 학자들은 12-13절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편집자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으로 이해한다.<sup>43)</sup> 특별히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는 13b절의 문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포로기 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sup>44)</sup>

그러나 야훼는 자주 자신에 대해서 3인칭으로 표현한다.<sup>45)</sup> 또한, 12-13절은 11절의 시적인 구조에 매우 잘 맞는다.<sup>46)</sup>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41) O. Kaiser, *윳글*, 84; J. Hays and S. Irvine, *윳글*, 109; M. Sweeney, *윳글*, 138-9; H. Wildberger, *윳글*, 258; H. G. M. Williamson, *The Book Called Isaiah: Deutero-Isaiah's Role in Composition and Reda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4), 35-36.

42) M. Sweeney, *윳글*, 139; H. Wildberger, *윳글*, 274.

43) H. G. M. Williamson, *윳글*, 37.

44) R. E. Clements, *윳글*, 78; O. Kaiser, *윳글*, 85.

45) H. G. M. Williamson, *윳글*, 35-36; F. Landy, *윳글*, 75, n. 50.

46) F. Landy, *윳글*, 75; M. Tsevat, *윳글*, 157-158; G. K. Beale, "Isaiah VI 9-13: A Retributive Taunt against Idolatry", *VT* 41 (1991), 269; J. Magonet, *윳글*, 93-94.

언어유희를 발견한다. ‘אָדָם(하아담/사람) הָאָדָמָה(하아다마/토지) אָדָם(하아담/사람).’ 그리고 주제적으로도 12절은 11절을 강화시키고 있고, 13a절의 남은 자의 멸망에 대한 선언 속에서 심판의 심각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그 땅’(12절)과 ‘거룩한’(13절)이란 단어는 3절에 있는 동일한 단어들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11-13절에 있는 이러한 땅의 ‘비위집’은 온 땅에 ‘충만한’ 야훼의 영광(3절)의 결과이기에 이 두 이미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sup>47)</sup>

또한 11-13절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구절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전 722년에서 701년에 일어난 사건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734년부터 58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더욱이, ‘십분의 일’은 유다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십분의 일’은 “아모스 5장 3절, 6장 9절에서처럼 성경에서 관례적으로 소수 혹은 극소수”를 가리킬 수도 있다.<sup>48)</sup>

13절에 나오는 שֵׁץ(코데쉬/거룩한)란 단어는 3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와 관련시킬 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하나님에게 돌려진 거룩함은 마지막 절의 끝에서 씨 안에서 드러나며, 이장의 처음과 끝을 연결한다.”<sup>49)</sup> ‘그 거룩한 씨’가 큰 나무에 비하면 극히 작을지라도 수많은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씨는 죄 사함을 받은 이사와와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열어준다.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파괴와 존속은 나무들의 베임과 그것들의 그루터기와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에 비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이사와 6장과 1-12장에서 심판은 야훼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철저한 심판 예고가 1-12장의 심판 예언들과 연결되듯이 ‘거룩한 씨’에 대한 희망은 역시 1-12장의 구원 예언들에

47) Willem A. M. Beuken, *룻글*, 76.

48) M. Tsevat, *룻글*, 157, n. 13; H. Wildberger, *룻글*, 274; O. Kaiser, *룻글*, 84; R. E. Clements, *룻글*, 78.

49) F. Landy, *룻글*, 77.

50) 13절의 번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지면 관계상 여기서 다룰 수 없다. 여기서는 개역성경의 번역을 따를 것이다. 번역의 문제를 위해서는 H. Wildberger, *룻글*, 251이나 G. K. Beale, *룻글*, 257-278을 참조하라.

서 잘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사야 6장의 소명 기사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사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죄 씻음의 가능성과, 이사야의 위임 명령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6장 앞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6장은 1-5장의 결론이자 7-12장의 서론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이다.

## 4. 이사야 6장과 1-5, 7-12장 사이의 문학적, 주제적인 연결점들

### 1) 죄에 대한 고발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탄식 가운데 이스라엘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고발당하고 있다. 이어서 9-10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적인 고발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눈땀과 귀먹음과 마음을 강박케 함, 즉 이스라엘이 왕이신 야훼의 교훈을 듣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6장의 이 고발은 이사야 1-12장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모든 고발들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이스라엘의 눈땀과 귀먹음은 1-5장의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 1장 3절의 ‘알지(אָלֵךְ/야다) 못하고’와 ‘깨닫지(יָדָע/빈) 못하고’에 사용된 동사들은 6장 9-10절의 동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sup>51)</sup>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야훼를 버린 것(1:4)은 그분의 교훈에 대한 눈땀과 귀먹음을 초래 하였다.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

---

51) 로프 렌토르프, “이사야서 구성의 틀에서 본 이사야 6장 연구” (박경철 역), 「구약논단」 13권 3호(2007, 9월), 94-95에서는 이 표현이 1장 3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어떤 신학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밝히고 있다. 막힌 귀와 눈이 심판을 받지만(사 29:9-14) 결국은 그 막힘이 열리는 구원의 시대가 올 것(사 42:18-20; 43:8-10)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김재구, 윗글, 83-84를 참조하라.

씀을 멸시하였음이라”(5:24 허반 절). 그들은 결국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하지만, 야훼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교훈을 들을 것을 재촉하신다(1:10). 6장 9-10절에 나타난 그들의 지속적인 눈땀과 귀먹음과 마음을 강압케 함에 대한 선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야훼의 교훈을 듣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해의 부족은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메시지 듣기를 거부했던 것에서 잘 예시되고 있다(7:12). 7장 3, 4절에서 이사야에게 준 야훼의 첫 번째 명령은 6장 9절의 소명에 주어진 명령을 다음과 같이 잘 반영하고 있다. “가서 이르라”(וּאָמַרְתָּ לְךָ וְאָמַרְתָּ) (6:9)/ “나가서 이르라”(וּאָמַרְתָּ … צֵא/체 … 웨아마르타) (7:3,4). 그리고 아하스의 반응은 6장 9절에서 예상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7:12). 그러므로 이사야는 여기서 야훼의 교훈에 대해 마음을 강압케 하는 첫 번째 예를 보고 있는 것이며, 7장 13절에서는 שִׁמְעוּ/들음지어다)로 시작하면서 다윗의 집을 고발하고 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들의 왕에게 구하지 않았고 그분의 율법과 증거를 묻지 않는 대신 신진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었다(8:19-20). 여기서, 율법과 증거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교훈으로서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리킨다(1:10과 8:16 참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두 번째, 이사야 1-12장에서는 야훼의 왕권을 부인하는 인간들의 교만을 고발한다. 인간들을 높이려하거나 야훼보다 우상들을 더 높이려는 모든 시도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야훼만이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6:1). 교만의 주제는 1-5장 전체에 나타난다. 2장 6-8절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용한 מַלְאָכָה (말레/가득하다)라는 어근이 네 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6장 1-4절에서 야훼의 위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동사가 세 번 사용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그들 자신의 교만의 요소들로 가득 채운다. 즉 그들은 야훼의 영광 대신에 점보는 것, 은금, 말과 병거,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야훼의 임박한 심판에서 모든 교만과 높음

은 낮추어질 것이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2:11)” “인간의 높음이 꺾이고 사람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다(2:17; 5:15). 야훼의 날은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2:12).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은 2장 13-15절에서는 “레비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에 비유되고 있다. 6장 1절과 2장 11-17절 사이의 이러한 언어적인 연결은 두드러진다. 야훼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권세자들은 낮추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3장 1절-4장 1절에 열거되어 있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사 등의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어야 했다(2:22).

인간의 교만에 대한 고발은 7-11장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발견한다. 먼저, 이 땅의 왕들(7:1), 즉 유다와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앗수르의 왕에 의해서 낮추어져야 했다(7:2-8:8). 둘째로, 야훼는 에브라임의 교만과 마음의 거만함을 고발하신다(9:9). 마지막으로, 야훼는 앗수르 왕의 ‘교만한(개역개정: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10:12; 10:33-34)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신다. 앗수르 왕은 야훼의 진노의 막대기요 야훼의 손에 들린 도끼에 불과했으면서도 스스로를 야훼보다 높였고 야훼에 대항하여 자신을 자랑하였다(10:15).

세 번째로 이사야 1-12장의 신탁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불법과 불의함을 고발한다. 이것은 6장 5절에서 입술의 ‘부정함’(רָעָה/타메)으로 고발되고 있고, 7절에서는 이사야의 ‘악’(רָעָה/아본)과 ‘죄’(חַטָּאת/하타트)로 불리는데(1:4; 3:9; 5:18 참조),<sup>52)</sup> 모두 6장 1-4절에서 강조하는 야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 왕이신 “만군의 야훼는 정의로우시므로(צַדִּיק/미쉬파트)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

52) 룰프 렌토르프, *읽글*, 94-95에서 이사야 전체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있다. 동일한 표현들이 이사야 56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59:1-2, 12; 64:4-5), 이에 대해서는 김재구, *읽글*, 84-85를 참조하라.

의로우시므로(קָדוֹשׁ/체다카) 거룩하다 함을 받으실 것"이다(5:16).<sup>53)</sup> 김래용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의 개념이 이사야 1-12장의 심판과 구원의 신탁들의 전후와 중간에 골고루 배치되어 이 부분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절하게 지적한다.<sup>54)</sup> 하나님의 왕국은 공의와 정의로 가득해야 하고(사 1:21, 26-27) 하나님의 지상의 왕들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나라를 다스려야 했다(사 9:7; 11:4; 32:1; 왕상 10:9; 시 72:1).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 대신에(1:21; 5:7) 불법과 불의로 가득했고, 피가 가득했으며(1:15, 21), 피 흘림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했다(5:7).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의도를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야훼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복 주실 때 그가 원하셨던 것은 공의와 정의의 열매들이었다는 것이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제물을 좋아하지 않으셨다(1:10-20). 통치자들은 뇌물을 좋아하여(1:23; 2:23) 고아와 과부들의 억울함을 변호해주지 않았다(1:23). 야훼는 또한 이스라엘이 불의하게 이익을 챙기고(5:8), 술 취하고(5:11), 우상을 숭배하고(1:29), 도덕적인 판단을 왜곡시킨 것(5:20)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sup>55)</sup>

이스라엘의 불법과 불의함은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다(9:8-10:4). 선지자들은 거짓을 가르쳤고(9:15) 지도자들은 그들의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였다(9:16).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은 헛된 것을 말했다”(9:17). 백성들은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야훼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였다”(10:1-2).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 6장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던 고발과 1-5장과

53) 김래용,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 논단」 22권 2호(2016년 6월), 38-65에서는 이사야서에서의 ‘정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하고 있는데, 특별히 39쪽에서는 이사야 5장 16절을 그 증거구절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54) 윗글, 40.

55) 윗글, 54-56에서도 1장과 5장의 심판신탁 내에서 ‘정의’의 부재가 심판을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절들을 제시하고 있다.

7-11장에 나타난 직접적인 고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1-5장에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고발들은 6장에서 요약되었다가 7-11장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 2) 심판의 예언들

6장 11-13절에 나타나는 심판의 주제 또한 1-5장과 7-10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부분인 1장 7-9절에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졌음이 회고되고 있다. 특별히 7절은 6장 11절이나 13절에 나오는 표현들과 매우 유사하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6장 11절에 나오는 유사한 어휘들(땅, 성읍들, 토지, 황폐함(חָרַב/쉐마미<sup>56)</sup>)과 13절에 나오는 단어 ‘불타다’ 혹은 ‘황폐하다’(חָרַב/비아르)를 사용하면서 심판의 결과인 땅의 황폐함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심판의 모습은 1장 29-30절에 나오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에서 서론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신성시하며 섬기던 상수리나무처럼 이스라엘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6:13).<sup>57)</sup>

2장 6절-4장 1절에는 ‘그 날’의 시리즈로 구분되고 있는 심판 예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 날에, 야훼는 땅을 흔들고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2:6-21). 히브리어 어근 חָרַב(사멸/굴복하다)이 9, 11, 17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야훼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암혈과 바위틈에 들어가서 “야훼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는 후렴구가 10, 19, 21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의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이라는 표현은 6장 1-4절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야훼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또 다른

56) 룬프 렌토르프, 윗글, 97에서는 이 ‘폐허’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사야 전체의 심판과 회복의 주제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57) Willem A. M. Beuken, 윗글, 83.

후렴구인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11, 17절)는 야훼의 심판의 올바른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6장 1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 날에, 야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3:1).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3:2-4, 14), 예루살렘의 눈이 높은 여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3:16-4:1).

또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5:3), 야훼는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헐 것이며(5:5, כָּרַע/바아르=6:13)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 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בְּיָמַי יִבְנֶינָהּ/메엔 요셉, 5:9; 6:11).”<sup>58)</sup> 마지막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5:13; 6:12). 우리는 위의 구절들과 6장 11-13 절간의 분명한 어휘적 연결점들을 볼 수 있다. 5장 24-25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이 그것을 뒤따를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판의 혹독함을 “그렇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오히려 펼쳐져 있느니라”(25절; 9:12, 17, 21; 10:4)라는 후렴구가 잘 표현하고 있다. 최후의 결과는 그 땅에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야훼는 땅 끝에서부터 이방 나라(5:26 “먼 나라들”)를 불러서 자기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5:26-30). 이방인들이 올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오직 흑암과 고난만이 있을 것이다(5:30). 1-5장에 나오는 심판의 신탁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황폐함의 여러 측면들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은 6장 11-13절에서 요약되고 있는 것이다.

1-5장에 나오는 서론적이고 일반적인 심판은 7장 이후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에서 예시되고 있다. 7장 1절-8장 8절에 나오는 기사와 신탁들에서 앗수르 왕에 의한 에브라임과 아람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 ‘임마누엘’(7:14; 8:8)과 ‘스알-야숨’(7:3; 10:21-22)과 ‘마헬-살랄-하스-바

58) R. E. Clements, “Beyond Tradition-History: Deutero-Isaianic Development of First Isaiah’s Themes”, *JSOT* 31(1985), 107-108.

스(8:4)는 이러한 앓수르 왕의 심판의 징조들이 될 것이다. 5장 26-30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를 부르는 것에 대한 예언은 7장 18절에 나오듯이 야훼가 앓수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에 적용되고 있다(7:20). 이러한 앓수르에 의한 땅의 황폐화는 7장 18-25절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단락에 나오는 ‘그 날’ 시리즈는 2장 6절-4장 1절의 시리즈를 잇는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황폐함의 징조로 사용되었던 ‘쥘레와 가시’라는 어구가 7장 24, 25절에서 세 번 반복되는 것 또한 황폐함의 심각성을 증폭시킨다. 8장 4절에서는 북왕국의 포로 됨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앓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앓수르 왕이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킨 후에(아마도 주전 722년의 사마리아의 함락), 그는 유다의 목까지 치고 들어갈 것이다(아마도 주전 701년의 예루살렘 포위, 8:8). 8장 22절의 ‘환난’과 ‘흑암’이라는 단어는 앓수르에 의한 심판의 심각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5장 30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들의 역사적인 구체화에 다름 아니다.

5장 24-30절에 선언된 심판 신탁은 9장 8절(히 7절)-10장 4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신탁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정교화 되고 있다. 여기서 5장 25절의 후렴구와 같은 선언, “그렇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오히려 펼쳐져 있느니라”는 9장 12, 17, 21절(히 11, 16, 20절)과 10장 4절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에브라임에 대한 야훼의 심판의 점진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북왕국은 9장 8-12절(히 7-11절)에 언급된 야훼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 이후에도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9:13, 히 9:12). 그래서 또 다른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악행이 ‘불타오른 것’(9:18[히 9:17], 6:13, **בָּאֵשׁ**/바아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그 땅이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9:19, 히 9:18). 결국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다(10:4).

10장 5-19절에 나오는 심판 신탁은 앓수르에 대한 야훼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한다. 비록 야훼의 진노의 도구로 앓수르 왕이 사용되었지만 그 왕의 극단적인 교만 때문에 야훼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10:5). 야훼는 완전히 앓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10:16-19). “쇠로 그 뾰뾰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 이 권능 있는 자(야훼)에게 작별을 당하리라”(10:34).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1-5장에 나오는 심판의 신탁들은 6장 11-13절에서 요약되었다가 7-11장에 있는 이야기와 신탁들 속에서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 3) 구원의 예언들

6장 5-7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죄 사함과 정화의 주제, 그리고 13b절에 나오는 정화를 통한 거룩한 씨를 남기는 구원의 주제는, 2장 1-5절과 4장 2-6절에 나오는 신탁들에서뿐만 아니라 고발과 심판의 신탁들에서도 나타난다. 6장 7절에서는 제단의 핀 숲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이사야의 ‘악’(אֵשׁ/아본)이 ‘제하여졌고’(נָסַח/수르) 이사야의 ‘죄’(חַטָּאת/하타트)가 ‘사하여졌다’(כִּפְרוּ/카파르)고 선언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와 정화를 상징한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통해 정화된 후에 회개와 용서를 통해 회복될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사 40:1-2 참조). 이 주제는 1-5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들 가운데서도 야훼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씻고 정결케 할 것, 즉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다(1:16). 그리고 그는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신다(1:18). 그들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죄에 대한 야훼의 용서이다.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 그 백성들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1:26)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야훼의 심판이 정화(1:25, כִּבְרוּ/차라프) 혹은 혼잡물의 제거(1:16, 25; 3:1, 18, נָסַח/수르)로 묘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화시키는 심판은 야훼를 신뢰하는 남은 자(“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

기니라”)를 창조하는 결과를 낳는다(6:13b절).<sup>59)</sup> 이 주제는 4장 3-4절에 나오는 구속의 신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

3 시온에 남아 있는 자(גִּיּוֹנִים/한노타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קִדְּוָה/카도쉬) 칭함을 얻으리니 4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רַחֲצֵם/라하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תַּהַרְרֵם/야디아흐) 때가 됨이라

야훼의 왕국을 정결하게 하는 심판의 한 가운데서 야훼를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사야처럼(6:5-8)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과 회복된 시온을 왕이신 야훼께서 영광으로 덮어 보호하실 것이다(4:5-6). 이 남은 자와 회복된 시온은 의심할 여지없이 6장 13절의 ‘거룩한 씨’와 연결된다.

진정한 회복은 백성들이 야훼의 교훈들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왕이신 야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야훼의 교훈들 듣기를 거부한 것은 야훼에 의해서 이미 고발된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이었다(6:9-10). 시온은 야훼의 교훈의 근원으로서 다시 회복될 것이며(2:2-4)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달려와 야훼의 토라를 배울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야훼의 교훈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2:4).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산꼭대기에 높이 세워진’ 여호와와의 전(2:2)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야훼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여호와와의 전을 본 이사야(6:1)처럼 인식하게 될 것이다.<sup>60)</sup>

구원의 주제는 7-11장에서 구체화된다. 4장에 언급된 남은 자는 7장의 기사에 끼워진 앗수르에 의한 심판의 신탁 가운데도 나타난다. “그 땅 가운데 남

59) Craig A. Evans, "Isa 6:9-13 in the Context of Isaiah's Theology", *JETS* 29 (1986), 143.

60) Willem A. M. Beuken, *윳골*, 79

아 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7:22) 이러한 말들은 앗수르의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스알-야숨’(שׂוֹאֵל וְיָסוּם)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7:3)은 야훼의 무서운 심판을 견딘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암시하고 있다(10:20).<sup>61)</sup> 심판을 확실하게 하는 징조인 ‘임마누엘’(עִמָּנוּאֵל, 7:14; 8:8)도 국제적인 전쟁(8:9-10)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이다.<sup>62)</sup> 이사야는 8장 11-22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신탁이 보여주듯이 남은 자들의 대표이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8:17). 그와 그의 제자들은 ‘이 백성’(이스라엘, 8:11)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지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8:12). 오히려 그들은 만군의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만을 거룩하다고 여길 것이다(8:13). 이 절은 정확하게 이사야의 환상(6:4)을 연상시키며 이사야가 그 환상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 즉 야훼에 대한 경외(6:5)를 상기시킨다. 거룩하신 분(6:3; 8:18,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야훼”)인 야훼께 의논하고 그분의 율법대로 말하는 자들을 야훼는 구원하실 것이다(8:20).

이러한 주제는 앗수르에 대한 심판의 신탁에서 반복되고 있다(10:20-27). 유다가 비록 앗수르에 의해서 심각하게 심판을 당할지라도(10:28-32), 그 ‘거룩한 씨,’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야훼를 진실히 의지할” 것이다(10:20). 그들은 앗수르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10:20, 24). 야훼는 앗수르인들을 멸하실 것이다(10:25-27; 33-34).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남은 자’(10:20-22)라는 단어는 야훼께서 당신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를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강조한다. 이 남은 자는 6장 13b절의 ‘거룩한 씨’와 4장 2-4절의 예언에 나오는 “거룩하다 불리는” 자들의 구체적인 실현인

61) A. Laato, *Who is Immanuel?: The Rise and the Foundering of Isaiah's Messianic Expectations* (Abo: Abo Academy Press, 1988), 112-113; R. E. Clements, *윳글* (1985), 107 참조.

62) P. R. Ackroyd, “Isaiah I-XII: Presentation of a Prophet”, *VTSup.* 29(1978), 45-46 참조.

셈이다.

그러나 야훼의 구원은 남은 자의 보존에서 멈추지 않는다. 야훼는 자신의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9:1-7; 히 8:23-9:6; 11:1-16). 자신이 내린 심판의 끝에서 야훼는 자신의 남은 자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9:6, 히 9:5). 야훼는 이 아들을 의롭고 공평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9:7; 히 9:6; 11:1, 4). 야훼는 이 왕을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발로 세우실 것이다(11:10-12, 16). 야훼의 왕은 다윗의 보좌에서 야훼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9:7; 히 9:6). 그는 전쟁을 끝나게 할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9:5, 7; 히 9:4, 6; 11:6-9). 그는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11:2; 9:6; 히 9:5, “기묘한 모사”)으로 다스릴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눈멀과 귀먹음과 반대된다(6:9-10). 야훼의 이상적인 왕은 거룩하신 왕이신 야훼를 정확하게 대표하며(6:1-4)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6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11:9)이다.

12장은 이러한 야훼의 구원을 하나의 사실로서 축하하고 있다(12:1-3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이러한 찬양의 노래는 11장에 나오는 구원의 신탁의 절정이다. 이 찬양의 노래는 이사야 6장의 마지막 행처럼 1-12장 전체를 심판이 아닌 구원, 탄식이 아닌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다. 12장은 1-11장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반영한다. 야훼의 미쁘심(“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 높으심(4절; 2:11, 17), 역사 안에서의 야훼의 영광(5절; 2:10, 19, 2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6절; 1:4; 5:19, 24; 10:20) 등이 그것이다.

## 5. 결론

야훼의 우주적인 왕권, 인간의 죄와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선지자의 소명,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들, 무서운 심판, 평화를 통한 남은 자

의 구원과 회복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사야 6장의 소명 기사는 공통된 장르, 어휘, 주제들을 통해서 1-5장과 7-12장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주제들을 강화시키고 안내한다. 1-5장에 나오는 일반적인 고발과 심판과 구원의 신탁들은 분명하게 6장에서 집약된다. 이사야의 소명 기사 속에서 이사야의 경험과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통해 죄와 심판, 죄 씻음을 통한 정화,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6장은 그 자체로 문학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들의 모음인 1-5장<sup>65)</sup>에 대한 결론<sup>64)</sup>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한편, 6장은 7-11장의 서론이다.<sup>65)</sup> 7-11장은 이사야의 소명 시에 주어진 말씀의 즉각적인 성취이자 구체화이다. 7-11장은 야훼를 신뢰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은혜로운 초청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sup>66)</sup> 6장의 메시지가 이야기와 고발, 심판, 구원의 신탁들의 모음인 7-11장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12장은 이사야 6장에서 예고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2장을 마무리한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6장은 1-5장과 7-12장을 잇는 신학적인 자석이다.<sup>67)</sup>

## 6. 참고문헌

- 김래용,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 논단」 22권 2호 (2016년 6월), 38-65.
- 김재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인 기능”, 「구약논단」 13권 3호 (2007, 9월), 70-88.

63) J. P. Love, "The Call of Isaiah", *Interpretation* 11 (1957), 285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1-5장)가 그의 소명을 설명한다."

64) J. N. Oswalt, *읽글*, 175.

65) L. Brodie, "The Children and the Prince: The Structure, Nature and Date of Isaiah 6-12", *Biblical Theology Bulletin* 9 (1979), 27-31.

66) J. N. Oswalt, *읽글*, 175.

67) B. S. Childs, *읽글*, 332.

- 김회권, “이사야의 하나님 결단의 신학”, 『구약논단』 13권 3호 (2007, 9월), 10-29.
- 롤프 렌트르프, “이사야서 구성의 틀에서 본 이사야 6장 연구” (박경철 역), 『구약논단』 13권 3호 (2007, 9월), 89-102.
- 홍성혁, “이사야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구약논단』 제 15권 1호 (2009년 3월), 137-154.
- Ackroyd, Peter R., “Isaiah I-XII: Presentation of a Prophet”,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29 (1978), 16-48.
- Alexander, J. A., *Commentary on Isaiah* (Two volumes in one), (Grand Rapids: Kregel, 1992).
- Bartelt, Andrew H., “The Centrality of Isaiah 6(-8) within Isaiah 2-12”, *Concordia Journal* 30/4 (2004), 316-335.
- Beale, G. K., “Isaiah VI 9-13: A Retributive Taunt Against Idolatry”, *VT* 41 (1991), 257-278.
- Beuken, Willem A. M., “The Manifestation of Yahweh and the Commission of Isaiah: Isaiah 6 Read against the Background of Isaiah 1”, *Calvin Theological Journal* 39 (2004), 72-87.
- Brodie, Louis., “The Children and the Prince: The Structure, Nature and Date of Isaiah 6-12”, *Biblical Theology Bulletin* 9 (1979), 27-31.
- Brown, William P., “The So-Called Refrain in Isaiah 5:25-30 and 9:7-10: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2 (1990), 432-443.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lements, R. E., “Beyond Tradition-History: Deutero-Isaianic Development of First Isaiah’s Themes”, *JSOT* 31 (1985), 95-113.
- \_\_\_\_\_, *Isaiah 1-39* (New Century Bible Commentaries ;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Evans, Craig A., "Isa 6:9-13 in the Context of Isaiah's Theology", *JETS* 29 (1986), 139-146.
- Gitay, Yehoshua.,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sen: Van Gorcum, 1991).
- Habel, N.,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 (1965), 297-323.
- Hays, John, and Stuart Irvine, *Isaiah,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House, Paul R., "Isaiah's Call and its Context in Isaiah 1-6", *Criswell Theological Review* 6 (1993), 7-22.
- Hurowitz, V., "Isaiah's Impure Lips and Their Purification in Light of Akkadian Sources", *HUGA* 60 (1989), 39-89.
- Kaiser, Otto, *Isaiah 1-12* (OTL; Westminster Press, 1972).
- Kaplan, M. M., "Isaiah 6:1-11", *JBL* 45 (1926), 251-259.
- Knierim, Rolf, "The Vocation of Isaiah", *VT* 18 (1968), 47-68.
- Laato, Antti, *Who is Immanuel?: The Rise and the Foundering of Isaiah's Messianic Expectations* (Abo: Abo Academy Press, 1988).
- Landy, Francis, "Strategies of Concentration and Diffusion in Isaiah 6", *Biblical Interpretation* 7/1(1999), 58-86.
- Liebreich, L. J., "The Position of Chapter six in the Book of Isaia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5 (1954), 37-40.
- Lind, Millard C., "Political Implications of Isaiah 6",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ed.),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Vol. 1 (Leiden, New York, Koln: Brill, 1997), 317-338.
- Love, Julian Price, "The Call of Isaiah", *Interpretation* 11 (1957), 282-296.
- Magonet, Jonathan, "The Structure of Isaiah 6", *Proceedings of the Nin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Division A (The Period of the Bible)*

-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85), 91-97.
- Mclaughlin, J. L., "Their Hearts Were Hardened: the Use of Isaiah 6, 9-10 in the Book of Isaiah", *Biblica* 75 (1994), 1-25.
- Miscall, P., *Isaiah* (Readings, A New Biblical Commentary; Sheffield: JSOT Press, 1993).
- Oswalt, J.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 Seitz, Christopher R., *Isaiah 1-39*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 Stuhlmüller, Carroll, *Isaiah: Read And Pray* (Chicago: Franciscan Herald Press, 1976).
- Sweeney, Marvin A., *Isaiah 1-39* (FOTL 14; Grand Rapids: Eerdmans, 1996).
- Tsevat, Matitiah,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and Other Biblical Studies: Essays on the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Pub. House, 1980).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vol. II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 Wildberger, H., *Isaiah 1-12* (trans. Thomas H. Trapp),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Williamson, H. G. M., *The Book Called Isaiah: Deutero-Isaiah's Role in Composition and Reda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Young, E. J., *The Book of Isaiah*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65).

## 검색어

이사야 6장

이사야 1-12장

이사야 1-5장

이사야 7-12장

소명 기사

심판신탁

구원신탁

## Reading Isaiah 6 in the Context of Isaiah 1-12

Sung Soo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ld Testament

Korea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literary function of Isaiah 6 in the context of Isaiah 1-12, which then will help us understand why Isaiah 6 is located there as a call narrative. For this task we need a close reading of Isaiah 6, a genre-based survey of the literary arrangement of Isaiah 1-12, and a research of the common themes, expressions, and vocabularies that Isaiah 6 and other parts of Isaiah 1-12 have.

First of all, the account of Isaiah 6 serves in the context of chapters 1-12 to reinforce Isaiah's indictment against the people of Israel for the sin of not honoring Yahweh as their true king. Their sin was their blindness and deafness to the word of Yahweh their king (Isa 6:9-10), which resulted in their unrighteousness and injustice condemned by Yahweh in chapters 1 and 5. A typical case of this sin was the arrogant attitude of King Ahaz in chapter

[www.kci.go.kr](http://www.kci.go.kr)

7.

Secondly, Isaiah 6 warrants Isaiah's declaration of the harsh judgments Yahweh is about to impose upon his people (Isa 2:6-4:1; 6:11-13). As a result the land and cities of Israel will become desolate and the people will go into exile, which will soon begin with the Assyrian invasion (Isa 7-8).

Thirdly, Isaiah 6 validates Isaiah's announcement of the wonderful promises of Yahweh's future redemptive act. Isaiah's confession of his uncleanness and the forgiveness of his sins in Isaiah 6 provides Israel with the hope that they will come back to Yahweh from any circumstances of the judgment. The 'holy seed' in Isaiah 6:13 symbolizes the 'remnant' who, trusting Yahweh as their true king, will survive the harsh judgements (Isa 8:9-23; 10:20-34). The 'holy seed' also means that through the purification of judgement (Isa 2:1-5; 4:2-6) Jerusalem will be restored as 'the city of righteousness' and 'the faithful city' (Isa 1:26), over which a righteous Dravidic king will reign in peace (Isa 9:1-7; 11:1-16). Thus, Isaiah 1-12 ends with a praise of Yahweh's salvation (Isa 12).

## Keywords

Isaiah 6

Isaiah 1-12

Isaiah 1-5

Isaiah 7-12

call narrative

oracle of judgment

oracle of salvation

- 투고일: 2019년 1월 15일
- 심사일: 2019년 2월 1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3일

[www.kci.go.kr](http://www.kci.go.kr)